

DECEMBER/ 2022

Vol.26

# EMMANUEL

임마누엘 [성숙호]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요한복음 13:34

즐거워야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무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 Contents

## 목차

---

### 02 성속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나를 세우는 말씀

나를 세우는 찬양

### 12 행진스타일

믿음의 선진들 - 마포삼열 선교사

시대를 분별하라 - 찬양팀이 만난 사역자 '강명식'

선교간증

† 키르기스스탄

† 프레즈노

성속 조력자

† 미용 선교팀

† 초등부

† 비전청년평원

세례간증

† 조만준 - 하이티 목장

† 공자현 - 사하라 목장

## 목차

---

성경공부 간증

- † 박에스더 - 사이판 목장
- † 박민경 - 빅토리아 목장

### 42 실만한 물가

시가 있는 풍경 - SOLA FIDE  
임마누엘 카툰 - FRED'S DIET  
우리 반려견 돌보기  
환경 지키기 - 재활용

### 48 빛과 소금

인터뷰  
† 곽은혜 전도사 - 영유아부  
† 오솔길 전도사 - 중고등부  
사역탐방 - 친교부  
목장소개 - 히로시마 목장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예녹 위원회

### 58 임마누엘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 함께 웃고 함께 우셨습니까?

함께 걸어 왔던 2022년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영혼 구원의 해'를 거쳐 '성숙의 해'로 올 한해를 함께 걸었습니다. 힘겨운 팬데믹 터널의 끝을 지나오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닮아 한 해를 섬길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2년은 서서히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와 빈자리를 채우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표어에 합당하게 일년 동안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하셨는지요? 코비드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위기는 역시 '사회성의 결여'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슬픈 솔리스트들의 탄식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며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목장모임을 통해 영적 외로움을 해결하던 성도님들도 서서히 다양한 대면 모임에 얼굴을 드러내시는 광경을 보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봄, 친교실에서 재개된 주일 식사를 함께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던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숙의 종착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끝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감을 뜻합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마음에 새겨 그분을 따라 섬기는 종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뜻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요약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죽순은 하루에 120cm씩 자라는 무서운 성장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데에는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 서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어 3년반의 짧은 불꽃과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올 한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 | 박성호 목사



#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3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나를 지으셨다.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려 주신다.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하는 일은 몇 번씩 되묻는데 항상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행할 때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리고 결과에서도 최선을 다한 만족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행할 때는 불편한 마음과 이견 이렇게 하고 저견 저렇게 할걸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따른다. 그리고 적절한 말로 소통하는 일에 약한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간구할 때 내 영혼을 장려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우신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조목조목 짚어 주신다. 기도에서 빠뜨린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만져 주신다. 내가 기도 한 것 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면 나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다.



##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7

그 경험은 청년 시절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손편지 쓰듯 적는 습관에서 더욱더 깊어졌다. 적어 내려간 기도는 시간과 같이 사라지지 않아 참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회상하며 지난 시간에 나를 도왔던 도움의 손길, 은혜의 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와의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과거의 기도를 대할 때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곁에서 역사하시며 큰 계획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과거의 흔적은 아쉬움과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흘러보낼 생명을 보듬는다.

어느 날, 두 갈림길이 눈앞에 놓인다. 넓고 편한 길과 좁고 섬기는 길, 두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열심히 간구하는 가운데 새벽에 잠에서 깨어 뒤척이다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스스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과정을 알아본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고 적절한 시점에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이 되셔서 어느새 나는 순종의 자리에 와 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자리임을 알게 하신다. 그 길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자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귀한 사역의 길이다.

오늘 나는 4년 전에 본향으로 가시고 남겨 준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편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은혜와 어머니의 영성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자국이 내 삶과 자녀들의 삶,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마음속 깊이 갈망한다.

글 | 장은영 (편집부)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출애굽기 17:14



임마누엘 신앙지는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신앙지에 기록하는 가운데 복음을 모르던 영혼은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며 기존 신앙인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다.

2013년 창간호부터 주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통해 과거 역사를 이어가고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 나의 나 된 것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릴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랐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신앙 생활을 해 왔었고 그것이 이제와 돌아켜 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릴적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찬양이라 믿었고, 이 달란트를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비전을 놓고 무작정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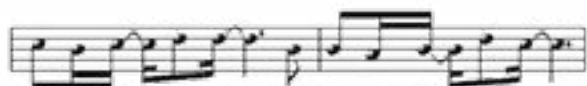
정말로 돌아켜보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님이 일하셨던 순간 순간을 기억하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주인이 맡긴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겨 온 충성된 종과 같이 주께서 내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기도가 임마누엘 교회 성가대 지휘자라는 자리 앞에서 거룩한 부답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노래를 해 왔지만, 나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할 때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기쁨을 찬양대원들과 함께 나누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글 | 이상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 마포삼열 선교사(Samuel A. Maffett)와 길선주 목사

**영적** 레거시(LEGACY)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2022년 9월 둘째주 토요일새벽기도회와 북가주 금식기도원에서 드려진 산상기도회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새벽기도회와 산상기도회는, 임마누엘을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 구원에 전력 질주케하는 귀한 영적 자산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영적 레거시(LEGACY)가 되기까지는 다시 한번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담임목사님의 바램이 담긴 메세지였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새벽기도회의 은혜와 유래를 찾아보니 한국 장로교회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길선주 목사님의 생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중인 마펏선교사  
(왼쪽 양복입은 분, 우측은 길선주 목사)

**마포삼열** (SAMUEL A. MAFFETT) 선교사님은 1864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매디슨에서 태어나, 청교도적인 엄격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1888년 당시 보수파 신학교로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던 1889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조선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예수교학당'에서 교육사역을 하던 그는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평양을 자신의 선교중심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의료와 교육을 통해 조

심스럽게 복음전도의 길을 모색하던 초창기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그는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직접 노방전도에 나섰으며 저녁에는 사랑방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후에 회개하고 유명한 목사가 된 이기풍의 돌팔매에 맞아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조선초기선교사상 잘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그는 1893년 평양에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교회'를 세웠습니다. 후에 '장대현교회'로 개칭되어 해방후 북한이 강제로 폐쇄할 때까지 서북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조선의 예법을 익히고 특히 한국음식을 즐겨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를 조선사람들은 "마포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모펏 선교사님이 세운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 장로교회 첫번째 안수목사 가운데 한분이며, 한인으로서 최초로 한인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한편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평



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을 전파했던 강력한 영성을 지닌 목회자였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으로 시작된 성령의 불길, 마침내 1907년 신년 벽두,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장대현교회에서도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평양의 오순절]로 이어졌고, 그 후 지방에서도 여기저기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의 초대교회는 성령체험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부흥의 열기가 2년이 지나며 식어진 것에, 목사님은 동료 장로 중 한명과 함께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2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가 약간 지난 시간에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점차 소수에게 전해지고,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 기도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교회에 알리며 누구든지 그들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4시 30분에 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1910, GEORGE T. B. DAVIS, KOREA FOR CHRIST) "다음날 새벽 1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 새벽 2시까지 몇 백 명이 모였습니다. 종이 울리자 사오 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매일 새벽 6,7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던 네 번째 날에 전 회중이 갑자기 자신들의 무관심, 냉랭함, 사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결여에 대한 죄를 통회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사죄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길과 방식을 나타내는 강한 열정이 회중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가복음 2:6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때 공생애동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모습을 가장 순전하게 따라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배출해낸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일생을 드린 영적 레거시의 귀한 흔적을 봅니다.

작고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귀한 영적 축복을 가진 베들레헴을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표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순전함으로 쫓아가는 우리 임마누엘도, 예수님을 담아내는 영적축복을 받아누린 베들레헴처럼 동일한 축복으로 은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새벽기도와 산상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영적 자산이 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수 있는 귀한 영적 레거시(LEGACY) 가 되도록 함께 애쓰고, 울고 웃는 귀한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 주은혜 (선교 중보 기도팀)

# 찬양팀이 만난 찬양사역자 ‘강명식’

**질문 1** 1세대 찬양사역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님이 인도하는 찬양팀의 곡을 들으며 자란 세대가 이제 찬양인도자들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간단한 사역자님 소개와 근황을 알려주세요.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지요?

1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1.5세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주찬양선교단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1세대 사역자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배운 것은 사실이구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국내외의 순회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미국에도 자주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학교(송실대 음악원 교회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사역자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중 가장 기억이 남는 곡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찬양 11집과 저의 1집 앨범에 수록되었던 ‘기뻐하라’라는 곡인데요. 20대 중반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자신과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찬양선교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지하철 안에서 곡을 쓰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 그려지며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곡 발표 후 낙심 중에 계시던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곡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피드백들을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질문 3** 사역자님의 ‘진리’ 라는 곡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요?

“진리”는 한국 교회의 귀한 어른이셨던 고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다가 쓰게 된 곡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심적으로도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시기에, 어떤 분이 짧은 옥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꼭 붙들어야 할 4가지 진리...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들 앞에, 다시 한 번 제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4가지를 요약해서 각각 한 절의 가사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질문 4** 지금 우리들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찬양도 그런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하면 여러 세션들과 전문 사역자들의 찬양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나 편곡도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있어도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크리스천 음악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찬양팀들이 가지고 있어야하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적인 팀들의 곡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거나, 교회 찬양팀이 참고하는 것은 유익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들 수 있는 음악을 교회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워십 음반이나 영상조차도, 레코딩한 음원에 수정, 추가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과 똑같이 연주하는 것이, 내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에서도 적합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찬양은 그저 좋은 음악을 넘어서, 성도들이 하나되어 드리는 공동체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예배와 찬양의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음악적인 퀄리티가 기름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에 영감을 받고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여러 찬양팀을 이끄셨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님은 찬양팀 멤버가 어떻게 기본기/본질을 지켜야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보는지요?

종종 찬양 사역자들이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듯한 승리의자 모습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지만, 삶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조차도 수많은 시편에서 현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탄원과 울부짖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찬양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시편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선포하며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어떤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찾아보고 묵상/적용하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 6** 특정 악기에 대한 인원이 많아 로테이션을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면, 인력 확보가 부족한 일부 악기와 멤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팀을 이끌기 위한 인력 풀이 갖춰질 수 있을까요?

멤버들에게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고 동의를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무대 위 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경험도 매우 소중하구요. 부족한 파트는 악기를 배우거나 연습하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 풀을 갖춰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관련해서 항상 '풀 밴드'로 찬양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키보드와 목소리만으로,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드럼 대신 퍼커션으로 만주 형태의 변화가 아주 신선한 예배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질문 7** 찬양팀 멤버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어  
지는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음악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픈된 팀과 그 반대의 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스페셜 멤  
버십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예배 사역의 목표와 철학에 따라  
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음악사역  
을 추구하시는 경우와, 음악적인 퀄리티보다는 예배자로서의 태도  
와 열정을 중시하는 경우... 어느 쪽만이 옳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물론 양자가 함께 갖춰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어  
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더라도, 찬양팀들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일  
원이라는 태도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  
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소속되어 영적으로 공급받고 삶을 나눌 공동  
체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8** 찬양팀 연습 시간이 악기팀 위주로 가게 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자님이 인도하실  
경우, 싱어를 위한 별도 연습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악기팀과  
별도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인도자의 시간이 많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한 상황이라면 싱어들 중에서 리더나 팀장을 세워서 악  
기팀과 별도로 연습하시다가 모여서 함께 연습할 수 있다면 효율적  
일 것입니다.

**질문 9** 신규 인원이 팀 멤버로 조인이 된 후 어떤 과  
정을 거쳐 예배에 서게 되나요? 일정 기간이  
나 훈련 과정 등 사역자님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턴쉽 또는 훈련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를 들면, 3개월 동안은 예배팀끼리의 예배, 기도모임, 연습시간 등은  
모두 참여하게 하지만, 무대에는 서지 않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  
해서 성실성, 태도와 자세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찬  
양팀에서는 필독서를 읽고 나누기, 예배일기 쓰기 등이 효율적인 훈  
련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배팀들끼리의 예배와 기도시간을 통해 삶을 나누고 하나의 공동체  
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니다.

**질문 10** 인도자 혹은 리더로서 팀 안에 악기 전  
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 있을 때 양쪽이  
추구하는 것을 맞춰가며 팀을 하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자들  
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악기를 익혀온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앞서 말한 것처럼, 찬양은 음악을 넘어서 회중들이 하나되어 올



러드리는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팀원들간에 허심탄회하게 예배의 마음과 예배 사역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리더는 각 파트의 연주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연습과 훈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11 전문 사역자로 찬양팀을 이끌고 매주 예배 전 연습에 대한 꿀팁은 무엇일까요?

연습에 앞서서 짧게라도, 예배팀원들끼리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인도자가 효율적인 찬양사역이나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의 기능이나 실력보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인도자의 존재만큼 예배팀을 하나되게 하고 예배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된 팀원들은 예배에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과 파트를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물론 인도자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하지만, 그 열매는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정리 | 김태형, 박태욱, 오상민, 정용익 (찬양팀)



#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 나는 세상에 살지만 더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단기선교를 통해 단기선교에 함께하신 믿음의 지체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크게 하나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키르기스스탄 선교팀원들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

선교후 달라진 요즘 저의 모습을 잠깐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 그런 다음 사랑스러운 아내와 우리 두 딸을 섬깁니다. 셋째, 직장에서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섬깁니다. 넷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식구들을 섬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선교전 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도 부끄럽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에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또한 나누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기선교를 참여했습니다. 참가하게된 이유역시 하나님께서 봄학기에 들은 화요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의 저자 성령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듯이 부족한 저도 찾아 주셨기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마자 어느 토요일 새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단기선교에 참여하라는 광고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키르기스스탄 단기선교에 자원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주 단기선교 훈련을 받는데 함께 참여하신 팀원들의 모습이 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었나 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며 훈련받는 내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자 저를 깨끗케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마음깊은 소통은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나이들어서 사람들 사귀기가 힘들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에 대한 중요성과 믿음의 지체들과 만드는 예수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서로 형편과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온 모습, 남에게 칭찬받기만을 원하는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나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만 이웃을 위한 척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끔 반성하고 회개를 몇 번 했었지만 표면적이고 형식적일 뿐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반성이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기선교훈련부터 시작하여 선교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되었습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맺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에 함께한 팀원들 한분한분 모두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을 보게 하셨고 선교지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마음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힘들만도 한데 그만큼 서로 더 열심히 섬기고 축복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있는 것처럼, 신실한 척 하며 포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나에게는 참 크나큰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선교기간 동안 팀원들이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이번에 부모님을 따라 선교에 참여한 어린 신후를 통해서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디



옥 교회에서 있었던 의료사역 둘째날이며 VBS 이틀째날, 한참 힘들게 치료사역을 하다가 잠시 쉬는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환자도 조금 늦은지라 환자 테이블을 소독하고 이제 쉬려고 할때 신후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심심해 죽겠다는 얼굴로 열심히 닦아놓은 테이블 위에 벌렁 드러누워 칭얼거리는 모습에 아마 예전같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와서 참 성가시게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이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을 전심을 다해 섬기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순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잠시 피로를 잊을수 있었던 축복을 신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신후를 조용히 축복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위의 찬양 가사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깊은 곳에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증을 마칩니다.

글 | 김상언 (초등부)

# 가족이 함께하는 선교여행

올 초 저희 가족의 화두는 여름휴가였습니다. 대학 입학 앞둔 큰 아이와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지 방문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교회 고지로, 저희는 매년 가던 남편의 해외선교와 여름휴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이를 위해 가족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저희를 프레즈노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프레즈노를 권면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해외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던 저는 로컬 선교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외 선교를 가는 것도 남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지요.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로컬 선교라는 큰 물살에 가족의 시간과

마음을 맡기니,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의 선교가 아닌, 큰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하길 바랬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가족이 속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힘을 모으니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번째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많았는데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싶지만 저의 기질과 환경 등으로 인해 막막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일상의 한부분이 되고 선교날이 다가오니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교지를 두고 아이들과 나눴던 많은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선교 현장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큰 아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감당했고, 누나 껌딱지였던 둘째는 더많은 누나와 형, 동생으로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생이 된 둘째와 참여했던 청소년 감동캠프 Youth Connect 를 통해 서로에게 눈물로 감사편지를 쓰고 아이로부터 발을 씻김받는 시간은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현지 친구들도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가 돌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실까 싶었습니다. VBS 기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울수 없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삶을 실제로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Ellena 라는 16살 소녀가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 데려다주며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물어보자 아이는 홈리스들과 중독자들이 싸움을 걸어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칼을 가지고 다닌다며 학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몸에 숨겨 등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삼촌이 뒷마당에서 총에 맞았는데 다행히 살아났다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란 저는 총에 맞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없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보고 자라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이유가 있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부여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앞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 많은 빛을 탐감받은 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세상것에 마음을 두고 가족에게 그 잣대를 대며 살았던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TA 로 섬기는 청년들의 상황도 Ellena 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몇해전부터 임마누엘 VBS를 통해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는 밝은 청년들로 성장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독에 빠진 부모와 10명이 넘는 이복 형제들과 살고 있었고 그 가까운 LA와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해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빛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받아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는 제 마음을 아시듯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조금해하지 말고 탐심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선교 직후 대학으로 떠난 큰아이가 인근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내년 여름, 가족여행 대신 프레즈노 선교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둘째는 주저함없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선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고 저희 부부는 선교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글 | 방보경 (타이토 목장 / 찬양팀)

# 나를 찾는 시간 여행



이번 미용선교팀의 여정은 “나를 찾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동네 아이들이 저랑만 숙제를 한다고 할 정도로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학생들의 사랑과, 학부모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나이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이 있어서 막내동생으로, 막내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또 받은 사랑을 봉사하며 나누는 것을 행복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 받을 용기도 없었고, 남에게 상처 받을 용기도 없었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죽기 보다 싫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 딸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국에 온 6년동안 제일 많이 한 단어가 “Sorry “ 단어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잘못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Sorry”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서 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자식으로 이러시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차라리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제 딸 고쳐 달라고, 많은 원망을 했지만 제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부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이 이런 거냐고, 그럼 우리 아이같이 힘든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디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서 임마누엘 “사랑교육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교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고,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를 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보고 집으로 가는 가라지와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서 땅만 보며 걸었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까봐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용선교팀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열 발자국만 걸어도 발견되는 우리 동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숨은그림찾기에서 숨은그림을 찾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동기들에게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랑방(선교부실)이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난 동기들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팀장님의 말도 안되는 무한 칭찬으로 힐링이 되기 시작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권사님들과의 대화속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가위를 잡고 한 교제에서도 치유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을 만난 후 상처받기 싫어 꼭꼭 닫고 있던 마음들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용기술은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우리 선생님의 never give up 마인드와 동기들이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제 딸과 함께 할 선교지에서의 봉사를 꿈 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사하다보면 아주 아주 조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기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 | 오주향 (미용 선교팀)

#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흥하는 초등부



다시금 아이들로 북적이는 어린이 예배당의 공기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대면예배를 드린다는 설렘으로 예배당을 찾은 아이들은 그 동안 몸도 마음도 한뼘씩 부쩍 자라 서로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시간도 금새, 익숙함에 드러나는 장난끼는 마스크 속에 꽂꽂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그동안 텅비어 있었지만 기도와 찬양은 쉬이 없었기에 더 좋은 것으로 딱 찬 오늘입니다. 성숙호에서는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초등부 사역자로 부임하여 아이들의 영적인 친구로, 부모님들의 동역자로 섬기고 계신 김하은 전도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초등부 어린이 기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김하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등부만의 보물섬이야기도 실어보았습니다.

## 김하은 전도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이름을 선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됨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어릴적에 요약하자면 선교사 자녀라는건데요, MK (Missionary Kids) 라는 제 정체성은 어릴적엔 저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35년 넘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아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함으로 함께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심리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덴버제자교회에서 초등학생 자녀들과 3년 반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되신 계기와 언제 부임을 하셨는지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트라우마 센터에 있는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어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다보니 제가 자란 필리핀을 생각나게 하는 바다가 가까운 이곳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4월 1일 부활절 기간동안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 **팬데믹 기간동안 초등부를 섬기며 어떤 점이 아쉬우셨는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교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자녀들과 더 빨리 친밀해

지고 싶는데 원래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에 지금은 이미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네요.

도전되는 상황은 우리를 더 분발하게 만듭니다. 온라인 사역 역시, 지금까지 해 왔던 예배 그리고 관계형성을 어떻게 더 창의적인 환경 안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성숙 할 수 있던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창의적인 마음을 주신 창조주 안에서 초등부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기억은?**

Lydia 라는 친구가 어느날 AWANA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자기가 나중에 크면 Pastor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와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Lydia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은 적이 언제인지 생각 해 보며 새로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쿵쿵쿵 뛰니다!



###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서 라고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친구들은 항상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초등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섬김을 받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훈련시켜주실 것을 믿고 함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리 | 김연희 (편집부)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He said, “But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for you, that I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serve God on this mountain.”**

**Exodus 3:11-12**





**VBS 2022**  
**"CELEBRATING GOD'S GREATNESS"**

# 초등부 선생님 칭찬 릴레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빛어 주시기때문에 우리가 혼자 해야된다는 두려움 없이 리더로서든 조용히 보이지 않는곳에서든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임마누엘 교회 초등부 예배에서는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물, 바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을 시작으로 칭찬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 김상언 선생님



이번에 초등부에 새로 오신 김상언 선생님은 열정! 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주어진 어떤 일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며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을 대할때는 재미와 compassion으로 섬기시는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옆에 있기만 해도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하는 김상언 선생님, 감사합니다!

## 김민숙 선생님



주일학교 봉사 시작해서 아무것도 몰라 힘들었는데 김민숙 선생님께서 본인이 애써서 해왔던 수업 방법과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시는데 주저함 없으시고 모르는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전하는 헌신적인 사랑에 존경과 감사를 느낍니다.

## 한수연 선생님



초등부실에 오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눈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인사해주는 한수연 선생님이 계세요. 눈 맞추는 사람들에게 밝은 눈웃음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웃으시는게 전해져서 기분좋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옥 선생님

아직 잘은 모르지만 세심하시고 젠들하신 분 이라는걸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이 계시는 초등부에  
서 같이 섬길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 서민정 선생님

서민정 선생님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  
이들을 잘 챙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주안에서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동역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수한 선생님

항상 웃는 얼굴로 초등부를 섬겨주시는 Jim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시는 성  
령님을 봅니다!



### 정선희 선생님

Esther선생님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모든일은 맨 앞에서 감당해 주시며 음식 솜씨도 예술입니다. 특히 계장  
~~~~



### 김민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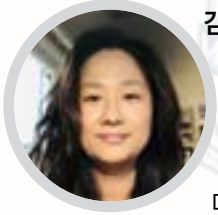
T. Min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바쁜 스케줄 (출장) 속에서도 묵묵히 변함  
없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꼭 필요한 멋진 선생님 이십니다.



### 정성보 선생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가르치십니다. 묵묵히 선생님의 존재로 초등부에 복이 되어주시는 동시, 향  
상 한 발짝 더 나아가심으로 초등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맥가이버같은 창의력으로  
AWANA게임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자녀들과 일상을 나누는 어렵지만 복된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선  
생님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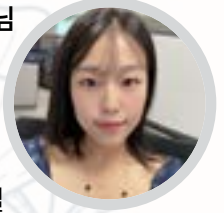




**김진경 선생님**

김진경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 만큼 따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는 분입니다. 매 주일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처음 교회에 방문한 아이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십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되게 하실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노력과 선생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준비성도 뛰어나시고 마무리까지 깔끔하신 초등부의 일꾼 선생님입니다.

**박지혜 선생님**



박지혜 (Jane) 선생님은 12시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예쁜 꽃같은 선생님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새 생명을 태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있으신 예비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편분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며 초등부에서 (3-5학년) 아이들과 함께 교제 하며 배우며 자라가고 계신 젊고 예쁜 선생님입니다. 박지혜 선생님 같은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초등부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박지혜 선생님 화이팅 입니다!!

**Teacher Yu Ching Liao**



Teacher You Ching is always happy to help and serve CM. She helps children whenever they need support and is a great teacher to help them learn. I can see that she loves children and CM.

**이승덕 선생님**



Teacher Seungduk is a very diligent teacher. He takes care of sound track, small group, labor works and many miscellaneous duties. He shares Gospel and life skills that protects kids from danger. We are grateful to have him with us.

**양희영 선생님**



Hannah 선생님은 임마누엘의 UCM 아이들 믿음의 씨앗이 UCM 떠나기전에 싹트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 윤진영 부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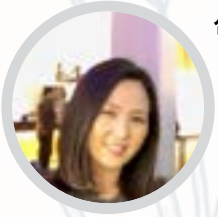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부목자님으로 엄마와 아내로서 또 어머니 모시고 사시며 나바호 인디언들을 마음에 품으며 1인 10역을 하시네요. 여러곳의 축복의 통로로 주의 사랑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며 소망중에 즐거워 하는 삶이네요.

### 김연희 선생님



김연희 선생님 오신 후에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학생과 학부모 관리와 출석체크까지 다 맡아주셔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든든히 등록부스를 책임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산드라 선생님



5학년을 담당하시는 산드라 선생님을 떠올리면 정돈을 잘 하시고 차분하게 맡은 일을 섬기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대할때 친절하시지만 공의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같이 단호한 부분도 있으셔서 아이들을 리드하시는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허물없이 친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이세요.

### 김하은 전도사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시는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늘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사역의 진행상황을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께 정확히 알려주시는 부지런함이 돋보이는 김하은전도사님, 거기에 아이들의 시선을 최대한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의 전도사님입니다.

정리 | 윤진영 (나바호 목장 / 초등부)

# 청년의 시대, 새부대에 담습니다

민호식 전도사님은 1994년도에 한국에서 볼티모어로 이주하여 보스톤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아틀란타 실로암 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사역을 담당하던 중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닮은 공동체를 소망하는 민호식 전도사님의 삶과 믿음이야기를 임마누엘 청년부의 형제자매들이 들어보았습니다.

##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신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에 교회 청년 선후배들에게서 사역의 길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2~3년 정도의 기간을 기도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소명보다는 잔잔한 물결 같은 소명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저는 사역자로 훈련되어 만들어 졌고 지금도 훈련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Welove라는 팀이 작사작곡한 '공감하시네'입니다. 요즘시대에 사람들이 더욱더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보니 더욱더 개인적인 삶으로 변하게 된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힘든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기쁨, 슬픔,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전도사님 어릴적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치원생때 지하철이나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대중교통 타는것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5살때 삼촌께서 지하철 2호선을 한바퀴 태우신적도 있었습니다.





### 전도사님의 MBTI와 취미가 궁금합니다.

저는 스파크형 ENFP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와 여행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17개의 National Park를 방문해 보았고 47개 주를 가보았습니다. 대학시절에는 기차만 무려 7일을 타며 워싱턴 DC에서 LA까지 Amtrak으로 왕복여행도 해보았습니다.

###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장점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단점은 제가 워낙에 성격이 급해서 뭘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 전도사님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20대 청년시절에는 Winnie the Pooh라 많이 불렸고 30대 전도사가 되서는 '탱크'라는 별명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애 성경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바빌론의 식민지 정책에 영적으로 승리한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된 구절이기도 하며,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도 저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이 주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말씀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에 KOSTA 집회에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않지만, 청년들에게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한다. 성공만을 추구하기 보다 세상의 법칙과 수단을 쓰지않고 더 손해보고, 인내하고,누구에게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던 설교가 지금도 귓가에 남습니다.

### 임마누엘 청년부를 만난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답을 드리자면, 제가 20대를 보낼 때 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훈련이 잘되어 있고 더 헌신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통해 제가 더 도전받고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저도 배우게 됩니다.

###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의 신앙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빛진자에서 복음에 미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신앙 비전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예수님이 머리되시고 우리는 몸된 공동체 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 | 김다윗 (비전청년평원), 김연희 (편집부)



#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월 무렵입니다. “교회에 한 번 같이 가보는 것은 어때?”하고 던지던 아내의 권유에 어느 날 문득 “한 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어, 나가보겠다고하니, 아내는 기뻐하며 제게 성경책을 선물하였습니다.

처음 예배가는 길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따라 무심결에 한 두번 간 것 말고는 교회 문턱을 넘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니 쑥스럽고 낯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는 못하였습니다. 교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공부 과정도 참여하지 않았고 임마누엘 교회와 같이 가정교회를 중시하는 교회라, 셀모임을 장려하였지만 셀모임도 따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교인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 없이 바쁘기만 하던 중 우연히 미국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0년말에 주재원으로 선발되고 21년 초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미국법인에서의 새로운 역할 적응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가족들도 낯설은 생활환경에 적응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다닐 엄두도 못내다가 시간이 지나며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할 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동료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목장에 소속된 목원도 아닌데 하이티 목장 목자님이 저희 가족을 마

치 목원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분위기도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업무로 알게된 홍콩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제가 미국 주재원으로 간다고 하자, 현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여 교회 정보를 알려주셨지만, 그때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우연히 그 정보를 보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역사하시어 저와 제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중에도 매일 이른 시각에 사무실에 나와 아무도 없는 늦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도 한국과 일하는 힘든 일상이 지속되었지만, 이전의 껍데기 교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는 갈급함에 지난 가을학기에 생명의 삶을 수강하였습니다.

13주 동안 시간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매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수업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함께한 그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임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루어온 것, 받아온 것 모두 나 자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 순간 예수님께서 제 삶에 동행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포도나무의 가지 같이 예수님에게 붙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6**



제가 미국에 얼마나 있을 지, 제 삶에 있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하며, 그러한 삶이 저의 유일한 삶을 믿습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지만, 매일매일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글 | 조만준 (하이티 목장 / 스테반 평원)

#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2년전** 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저는 채플, 찬송가, 찬양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하나님을 알고고도 믿으려고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사라지던 어느날 코비드가 시작된 그 해에, 제 몸에 너무나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에 커다란 이물감이 느껴지며 침을 삼킬 수가 없었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녀보고 여러 번 검사를 받아봐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미국 발령 소식을 접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미국으로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그 통증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어깨는 딱딱히 굳어갔고, 뒷 목은 무거워 고개를 들지도, 또 눕지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갔던 종합병원에서 내려준 병명은, 제가 늘 '약해빠진 사람들이나 걸리는거야' 라고 떠들었던 불안장애, 공황장애였습니다. 신경계 약들과 우울증약 수면제를 반 년 넘게 먹으며,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눈은 뜨고 있지만 반 시체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제일 편했던 엄마에게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며 매일 상처 주는 말만 하였습니다. 어느날 엄마가 힘들어 하는 저를 붙잡고 "자현아, 너 주위에 교회다니는 지인들이 많으니 같이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때 느낌을 아직까지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 날 산책하던 중, 아이 학원 선생님이자 아파트 주민인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나자마자 “제가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한참을 길에 서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후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기적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늘 먹던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고개를 들어 침을 삼키기도 편해졌고, 가슴 통증도 훨씬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편하니 잠을 잘 수 있었고 수액으로 버텼던 제가 맛있는 음식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게 진짜 맞을까? 란 의심을 하며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말했고, 코비드로 교회 가기는 어려웠기에 힘이 되는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며 1년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임마누엘 교회의 한 부목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형태로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저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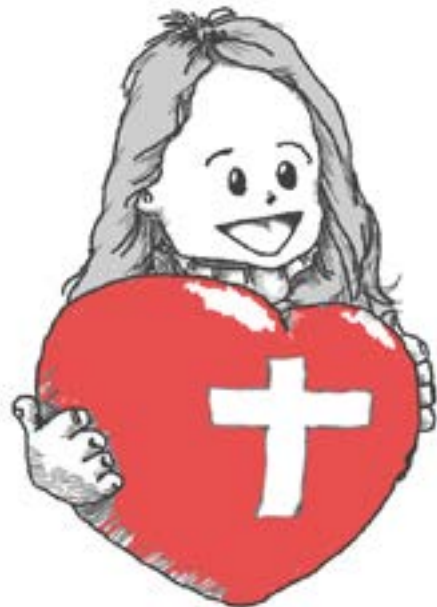
**고린도후서 5:17**

처음 박성호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주에 무언가를 고민하고 의심을 갖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주 설교에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는거였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찌 아실까 생각하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접모임때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가까운곳에 계신다는것을 여러 통로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목장에도 들어갔는데 첫 목장부터 지금의 목장까지,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실까 할 정도로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까지 받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찬 제가 세례를 받는다고 바로 마음이 달라질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불교 신자이십니다. 엄마는 결혼한 후 절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절도 향냄새도 싫어했던 저를 위해 하나님 믿기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더 나이 들고 아프기전에, 하나님을 알게되고 함께 손잡고 교회가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 모임때 읽은 갈라디아서 2:20절 고린도후서 5: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저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공자현 (사하라 목장 / 북부 필립 평원)



#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



**저는** 믿지않는 VIP 신랑을 섬기는일이 매번 참 힘듭니다. 특히 교회일들을 함께 상의할수 없어서 저는 늘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보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신랑의 눈치보는데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마더와이즈 교제가 제게는 참 많이 힘든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신랑과 교회 사역들을 두고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믿는 남편과 손 잡고 함께 기도할수 있는 자매님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여성예배의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해 제게 주신 말씀은 말씀위에 내가 더 단단히 서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와 가정을 세워야 주님의 나라도 세울수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제 자신과 신랑과 딸,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오래 가 있으면 싫어할것 같아서 제 스스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도 늘 신랑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여성예배를 드리기 위해 화요일마다 또 교회에 가고 있다는걸 신랑은 모릅니다. 일부로 숨기지는 안했지만 굳이 또 화요일까지도 교회에 간다고 말하기가 눈치 보여서입니다.

팬데믹 바로 전에 저는 주일 근무를 요구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 쉬다가 상황이 조금 좋아졌을때 정말 좋은기회가 왔으니 다시 직장을 다닐까 아님 쉬고 있던 김에 미용선교팀 교육을 시작해 볼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신랑과 의논하게 되었고 신랑은 흔쾌히 직장은 팬데믹 끝나고 언제든 또 구할수 있을테니 다른 분들도 미용으로 봉사할수있게 교육하는것도 괜찮은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사역에 물론 미용선교라는 말 대신 미용봉사라고 했지만 동의를 해줬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바로 신나게 열심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시작한지 3개월쯤 됐을때 어떤 한 저희 팀원분이 미용선교로 처음 나바호라는 선교지 땅을 처음 밟아보게 되었고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경험을 감사하게도 옆에서 지켜볼수 있었습니다. 6개월 쯤의 교육이 지난 지금, 드디어 4월16일에 많은 저희 미용 팀원분들과 함께 프레즈노 선교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했고 저는 늘 그랬듯이 당일로 아웃리치를 간다고 신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후 신랑이 본인도 아웃리치를 따라가서 운전이라도 해주고 도움일이 있으면 거들겠다며 제게 의논이 아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오랜시간 기다렸던 감사한 통보인지 말이 안나와서 그냥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사역을 준비하며 팀원분들을 처음 모시고 간다는 부담과 아무래도 신랑이 함께가니 눈치를 봐야할것 같아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정말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은 다시한번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팀원 한분도 빠짐없이 선교지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셨고 특히 선교사님의 몇달동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전기공사로 신랑을 귀하게 쓰임받게 모든것을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또 주님께서 신랑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섬김의 달콤함도 느꼈을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정말 제가 혼자 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제 신랑을 위해 저희 마더와이즈 그룹, 목장식구들, 그리고 정말 오랜시간 많은분들이 함께 기도해주셨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천천히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님앞에 나아가서 신앙고백 할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주님께서 일해 주실거라고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주시는 "Talking God" 를 찬양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해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제가 먼저 온맘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기초를 다질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 교재에서 배운대로 남편을 잘 섬길수 있길, 저희에게 주신 자녀를 말씀안에서 지혜롭게 키울수 있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할수 있는 부드러운 진흙이 될수있길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수 있길 기도합니다.

글 | 박에스터 (사이판 목장 / 미용 선교팀)



# 지혜로운 엄마의 기도



**이번** 여성예배는 처음으로 누구의 이끌림없이 내 마음이 이끌려 참석을 신청하고 시작한 학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동안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해를 보내고 나니 불편했던 마음에 이 수업을 신청해야겠다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낸 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며 나는 많은 질문들을 제게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난 지금 행복한지, 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걱정과 불안이 나를 에워싸는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어느덧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 알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에 지쳐있을때, 그동안 철저하게 모든것을 완벽하고 실수없이 하려고 노력해온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으니 조금은 느긋해지고 내자신에 대한 평가도 관대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여성예배시작 후, 교재인 마더와이즈로 매일 아침 아들을 등교시킨 후 8시 30분에 이 책을 열었습니다. 변화하고자하는 의지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첫날 목차를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관계 맺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첫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때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야만 세상의 잣대에 귀기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놓고 물질적인것을 비교하며 불만을 쌓아 올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온맘다해 간구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안습해 올때만 주님앞에 나아갔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주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두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랑해야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능력으로 일할때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번째,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동행자로 보내어 주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존경하며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존경받길 원하며 아내는 사랑받길 원한다는 이 말이 서로 다름을 설명하는 것 같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을 때 서로 더 사랑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네번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경건한 후손을 이땅에서 그분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키워야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주마다 주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아주 조금 달라진 저의 행동의 변화에 저희 가족은 더욱 많은 웃음과 은혜로 가득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의 지혜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음에 놀라웠고 그동안 다른 서적들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나를 빛고 계심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소그룹 멤버들을 통해 저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주 동안 아침에 성경을 찾으며 묵상했던 이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글 | 박민경 (빅토리아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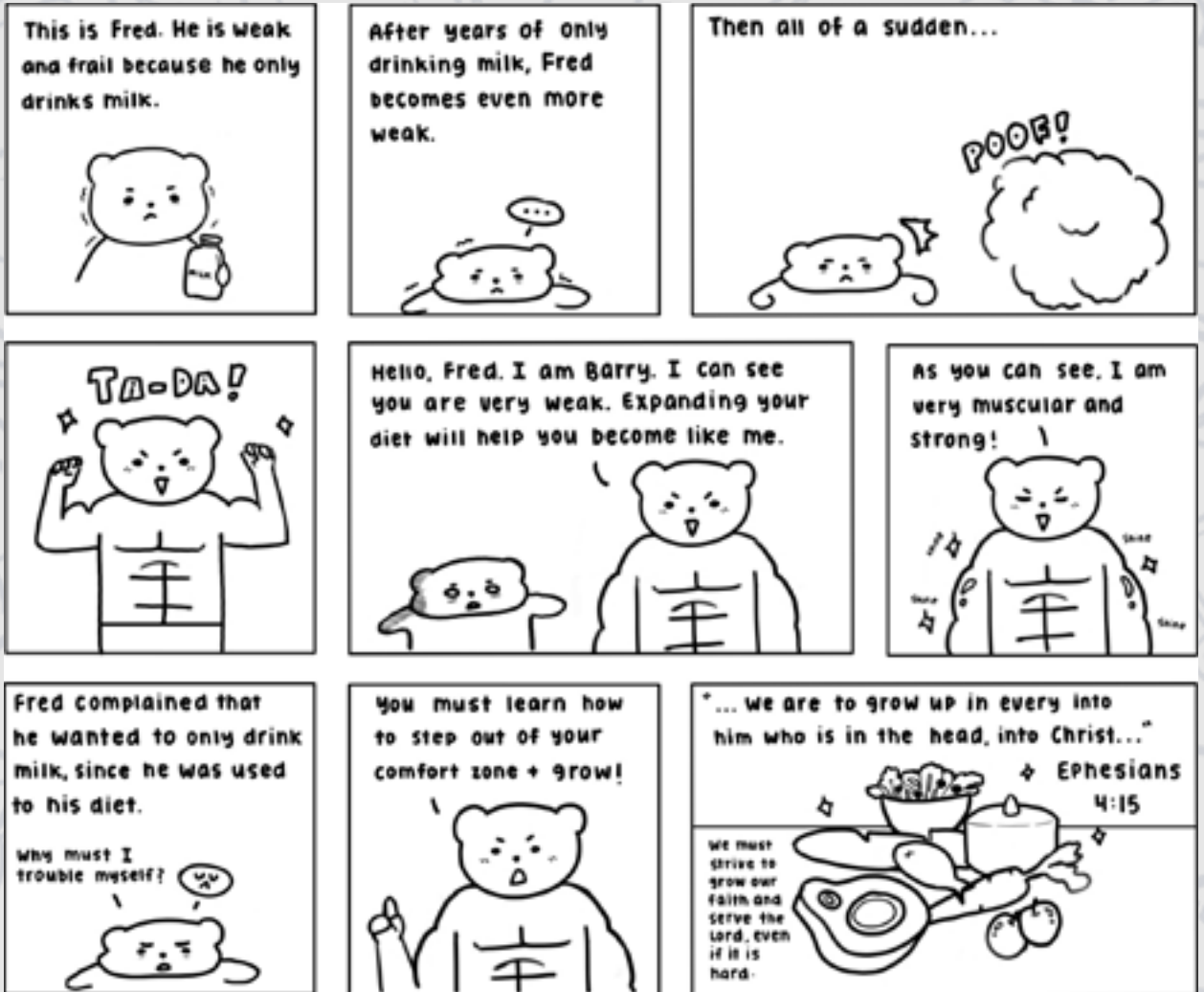
# 오직 믿음 *Sola fide*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온전하게 되셨 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5:9)

*When  
I obey God  
God is in my heart.  
Even when I don't obey God  
God is always by my side next to me,  
waiting for me to invite God in me.  
From now in my heart center,  
God abides with me  
forever and  
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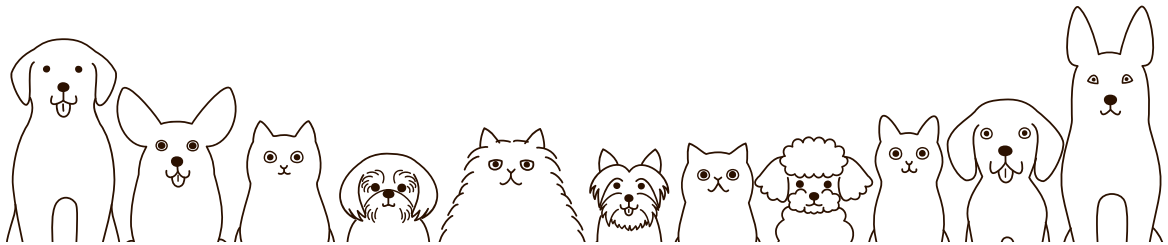
내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내 옆, 바로 내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중심에,  
'나'가 아닌 하나님이  
영원히계십니다.  
아멘

# Fred's Diet



# 반려견과 함께하는 즐거운 생활

팬데믹 기간동안 미국 전역에 반려견 600만마리가 증가했다는 통계와 주위의 반려견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강아지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독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반려견들도 계절 만큼이나 더욱 활동적이게 되어 우리들의 더 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지요. 부활의 봄 향기와 함께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며 우리 이쁜 댕댕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벼룩과 진드기관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벼룩들도 활동을 재개합니다. 여름철 미용하러 오는 강아지들 중에 벼룩을 종종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벼룩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벼룩약(Flea Medication)입니다. 목에 착용하는 약,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으로 침투한 약으로 인해 반려견의 피를 빠는 벼룩들은 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이 독하다보니 반려견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라임백신 (Lyme Vaccine)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벼룩과 진드기는 우리 눈에 잘 안보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털이 긴 반려견들은 벼룩 발견이 어렵지만 샴푸를 싫어하는 벼룩들이 밖으로 기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욕 중 발견이 가장 쉽습니다. 평소 벼룩 전용 샴푸를 구비해 놓으시고 벼룩과 진드기를 발견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벼룩 전용 샴푸를 바로 사용하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의 입을 열게하는 약이 있지만 집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드기의 몸통에 치약을 발라 면봉으로 계속 문질러서 진드기의 입을 열어 준 후, 핀셋으로 최대한 반려견들 살갓과 접촉되어 있는 부위를 잡고 살살 떼어주면 됩니다.

## 벌

봄철이 되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예쁜 꽃들이 만발하는데요 아울러 꿀벌들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반려견이 산책하며 즐겨다니는 잔디 안에 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아다니는 벌을 쫓다가 얼굴이나 코에 벌을 쏘이는 경우도 있지만 잔디 안에 있는 벌을 밟거나 건드려 발바닥이나 다리 주위에 벌에 쏘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반려견에게 치명적이지 않지만 벌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아나필락시스 충격 (Anaphylactic shock)이 발생하는 반려견의 경우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벌에 쏘인 후 10분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벌에 쏘이면 한동안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와 호흡곤란 (잇몸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 가능)이 있고, 앉거나 서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목욕

강아지에게 적합한 목욕 횟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자주 씻기는 것은 반려견 스킨에 좋지 않지만 밖에서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일주일을 넘기는 것이 쉽진 않죠. 일주일에 한번이나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샴푸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샴푸를 완전히 헹구어 내는 것입니다. 샴푸가 반려견 몸에 남아 있지 않도록 여러번 헹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시 샴푸가 반려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혹시 실수로 샴푸가 눈에 들어갔다면 흐르는 물로 여러번 헹구어 주세요. 목욕 후 반려견들이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 자주 깜빡거리는 이유는 샴푸가 눈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털이 긴 반려견은 컨디셔너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빗질이나 털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만큼 중요한 강아지 귀에도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또한, 코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둥이가 짧은 시츄, 퍼그나 불독같은 종류의 반려견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욕 후 반려견의 귀청소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중에 파는 귀 청소 제품 (Ear cleaning solution)을 구입하셔서 샤워 후 귀에 주입후 살짝 문질러 주신 후 귀 건조를 시키고 솜으로 닦아 주면 더욱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빗질

단모의 반려견들은 털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빗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모의 반려견들은 매일 빗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많이 자랄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약 4주에 한 번씩 관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빗과 슬리커 브러쉬 (Slicker brush)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피부 가까웁쪽 털이 쉽게 뭉치기 때문에 바깥쪽만 빗질 경우에도 뭉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뭉친 털을 풀 때에는 빗이 아니라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해야 합니다. 빗으로 뭉친 털을 풀려고 하면 반려견의 피부와 털이 당겨지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빗질을 싫어하게 됩니다. 슬리커 브러쉬 전면이 '피부까지 닿도록' 하고 살살 빗어주세요. 너무 세게 빗질을 하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고 빨갛게 브러쉬 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간혹 털이 아주 심하게 뭉친 반려견을 미용시키실 때 브러쉬 화상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귀 뒷쪽이나 아래부분과 목 부위는 살이 얇고 예민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위별로 전신을 빗겨 내려가며 뭉친 털이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반려견을 저의 삶의 일부분으로 케어하며 제게 주신 선교지 같은 일터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글 | 장제나 (실라 목장 / 찬양팀)



# 교회 쓰레기! 이대로 괜찮나요?

30여년 전 육신에 큰 질병이 든 줄 알고 죽음의 공포에 떨며 통곡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 새벽이 어슴프레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위한 차들이 다니고 태양도 떠오르고 나의 이 고통과는 아무 관계 없이 세상은 그렇게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난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주인도 아닌 하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또한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과 더불어 내가 정말 죄인임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 날 아침 떠 오른 태양을 통통 부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태양이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무 가지에 흔들리는 잎사귀도 정말 예뻐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자연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자연을 바라 볼 때마다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숨씨를 탄복합니다. 그 때 하나님의 창조 숨씨에 날마다 감동하며 지내던 시절, 어느 시골 길을 운전해 가고 있는데 너른 들판에 강통, 과자 봉지들이 굴러 다니는 것을 보고는 분노와 함께 가슴이 너무 아파 왔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곳에 저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런 광경을 보실 때 어찌 느끼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시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기막히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군가 와서 쓰레기를 획 던지고 땅을 파서 묻어 놓기도 한다면 우리는 크게 분노할 것 같고..... 그 절묘한 숨씨로 모든 것이 환원되고 재생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썩지도 않는 것들을 쏟아 부어대는 우리의 행태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환경보호 또는 쓰레기 줄이기를 말하더라도 모두 공감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방송하고 환경 단체가 움직이고 하는 사회 의식 계몽 정도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리 생각할 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바라 보며 자녀다운 관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 아닐까요?

일회용품은 쓰는 것은 참 편리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보다 일회용품이 편합니다. 물론 설거지도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건 세상을 계속 오염시켜 나갑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큰 딜레마를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종이 컵을 쓰기 보다 자신의 컵을 휴대하고 다니면 훨씬 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분리 수거를 잘 하면 물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귀찮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글 | 백영희 (권사회)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Youth 친구들과 재활용 쓰레기통 꾸미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여름, 미술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명의 임마누엘 Youth의 귀한 섬김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통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분리 없이 매주 산 처럼 쌓이던 임마누엘 쓰레기가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 2023년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

# 영유아부,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부서

## 질문 1 전도사님 지난 9월부터 영유아부를 섬기시게 되었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영유아부 전도사로 헌신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딸 다섯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때 부터 어머니는 아주 엄격하셨고 아버지는 자유롭게 해주셔서였는지 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버지 말씀을 아주 잘 들었던것 같아요.

아주 어릴때 아버지께서 교회 출석을 권유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눈물로 감사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며 한국에서 교육부 교사로 섬겼고 올 여름 캘리포니아 개혁 신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교사로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질문 2 교사로의 부르심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영유아부 교역자로 헌신하시게 되셨는지요?

임마누엘 교회는 2003년 평신도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약 13년간 섬겼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동시에 영유아부 교역 자리가 꽤 오랫동안 공석이였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에서 권유할 때 도 제 마음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다윗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길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목사님의 주일 말씀에서 다윗의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더 확실한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에 박목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영유아부 교역자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높이를 저에게 맞추고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과 확신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영유아부에 대한 열정과 사모가 생길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 질문 3 교육부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교역자로서 섬기시는데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한번 웃어 주면 모든 고생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영유아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설교 할때 돌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날 아이들이 반응을 하거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 기쁘고 보람되는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반가워하며 달려오거나 안기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기뻐하실까 싶어 매주가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 질문 4 교육부서 첫 단추인 영유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2023년 방향이 있을까요?

영유아부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하면서 예배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찬양, 놀이, 말씀, 공과 공부 그리고 만들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성장 하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부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부에 참석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닮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임마누엘 영유아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해봅니다.

정리 | 차연주 (편집부)



#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

## 질문 1 전도사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새롭게 섬기게된 오솔길 전도사입니다.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ACRONYM들이 있습니다, 바로 PK, MK, TCK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이시며, 선교사이십니다. 그렇다보니, PK(PASTOR'S KID), MK(MISSIONARY'S KID)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로 살면서 자주 옮겨다니다보니, 새로운 곳에 항상 적응해야만 했던 삶을 많이 살았죠. 그렇다보니, 'Home'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았지만, 그곳은 내 'HOME'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살거나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HOME'이 아닌, 제3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해서 TCK(THIRD-CULTURE KID)라는 ACRONYM도 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가르침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저의 아내(이요나)와 아들 오시안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와 같은 배경에서 자란 목사/선교사 자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후,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필라 소재의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을 졸업하였구요, 사역은 뉴욕과 필라에서 중고등부와 유치등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 질문 2 전도사님의 Youth 시절은 어땠는지요?

제 유스 시절은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고등학생 시절을 미국 중부 시골 산속에 있는 기독교 기숙사 학교를 다녔다는거겠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좋은 관계를 많이 형성하며, 말씀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계기였던것 같아요. 다만, 그 학교가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 특이한 학교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다 담지는 못하겠네요^^ 궁금하신분은 제 사무실을 한번 찾아와주세요~

## 질문 3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되었던 기억을 공유해주세요.

비록 사역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기쁘고 보람된 시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온지 얼마 안되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학생 한명 한명을 위로해주며, 중등부와 고등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훈련하고 세워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시 들렸을때, 그 교회에서 리더로 계속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셨지만, 새내기 사역자였던 저를 사용해주시어 그 학생들이 잠시 힘들어하던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했던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질문 4 임마누엘에 부임하신후 말으신 사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궁금합니다.

이제 임마누엘교회에 부임한지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록 아직 적응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인도 해주심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학생들과 체험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체험이 아닌,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이 떠져가며, 그에 따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 비록 혼란의 시간이 오더라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질문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전도사님께서 Youth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2023년 리스트 Top 3는?

정말 Youth 학생들과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지만 **선교, 캠핑, 찬양의 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의 답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스가 되는 2023년이었으면 합니다.



## 질문 6 Youth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전도사님의 예수님은?

갈수록 더 약해져만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학생들을 신앙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희망과 자체였던것 같습니다. 어렸을적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살면서, ‘내가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그때도 매번 깨우쳐 주셨지만, 오늘도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 가르쳐야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적에 부모를 의지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정리 | 한미송 (편집부)

# 우리는 식구

사전에서 찾아보니, 식구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머리되신 예수님 안에 한 몸된 성도가 같이 먹고 마시니 우리 또한 식구인가? 내게는 이 물음에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될 듯하다.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제한되면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지난 2년이 무심히 흘러갔다. 그러던 중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소리들이 나오면서 특별한 날에 친교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올해가 되자 여기저기서 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3월부터 친교부가 본격적으로 일하며 주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부엌일을 시작하려니, 자재 구매처 찾기부터 재료 양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몰라 허둥지둥 대면서 한주 한주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그래도 주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다. 기쁨으로 동역하며 몸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하시는 모습들을 볼때는 너무 감사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과 협력하면서 하는 일에 많이 서투른 나는 부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이 들었다. 또 주일에 음식재료가 모자라거나, 음식 상태가 좋지 않을 때면 낙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 마음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어느날 복음서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만찬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시기전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눅22:15



말씀하셨다. 왜 그 마지막 때,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그토록 같이 앉아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도 나를 팔아넘기고, 모른다 부인하고, 숨어버릴 못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까지 제자들과 한 몸 되기를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밥상에서 끼니를 같이 하면서 한 식구가 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을 제외하면 온통 힘들고 아픈자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다. 오죽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눅5:30)" 라고 했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11:19)" 라고 했을까?

그저 생각없이 일하며 정신없이 일했던 내게 목상을 통해 성도가 같이 모여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픈자나 건강한 자나 한 밥술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만찬이며, 같이 앉아 밥을 먹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식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친교음식을 시작하면서 두렵고 안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면서 바라본 모습을 통해 나와 우리 친교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식구를 만들고, 넓혀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맡은 사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생전 만나던 차 사고가 세번이나 나고, 잘되던 일이 꼬이며 이러저러한 힘든일이 여러가지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친교부원들 모두 진심으로 아파했고 기도하며 같이 밥을 먹었다. 우리의 이 섬김을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순간 순간 우리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친교부를 섬기며, 교회 사역은 효율성을 따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아파하는 지체를 보듬고,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도 느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어깨에 모든 짐을 지는 일도 아니며,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왜 효율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자들 열두명을 이끌고, 유대 땅 그 좁은 곳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며, 죽으시기 바로 전날밤에 자신을 팔아 넘긴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 섬김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내게 예수님은 팔을 걷어 올리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한경야 나와 같이 가자. 일은 내가 할테니 너는 사랑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일이 제일 쉬울 줄 알았지만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든 일을 하는 것 보다 더 힘들고 하기 어려운 일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를 못 댄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칭얼거리며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내가 언제 장성한 어른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그 날 부끄러움이 조금 덜한 모습을 주님께 보일 수 있을까?

# 서른 네 명이 하나가 되어

저는 열 세살때 남동생,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부모님께서는 조그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며 살았습니다. 완전 시골, 미군 해병대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던 부모님은 국제결혼하신 여성분들과 부대안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몇몇의 성도님들을 섬기며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고등학교때까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열명 남짓한 성도님들과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님의 설교를 들으며 특별한 신앙도 없이 교회를 다녔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학교 Christian club 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목회를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때 클럽활동을 통해 여름 단기선교도 참여하게 하시고, 졸업후에는 한인대형교회에서 1.5세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교사로 6-7년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의 20대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Christian 으로 살아가는 훈련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San Francisco Bay 지역으로 오게 되었으며,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더욱 은혜스럽게 느끼는 점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던 평신도 사역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7-8년간 목원으로 지내며, 윤시현 목자님과 우병기 목자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제작년부터는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으로 목자로 임명받게 되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장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VIP 가정이 등록하여 총 여덟 가정과 함께 목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덟 가정 모두 어린아이들이 있어 아이 열 여덟명, 어른 열 여섯명 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곧 태어날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연년생으로 주루룩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때 시골 아버지 교회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은 매주 모이지 못한적도 있었고,





어린이들이 많아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식구가 많아 모든 인원이 한명도 빠지고 앉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릴때도 우루루광광 몰려다니는 아이들로 예배가 진행되기 어려울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다 보니, 매주 목장예배를 드려도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오픈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거의 저희집에서 많이 드리고 한가정이 함께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넓게 풀어줄수 있는 공원에서 모이기도 하고, 꼭 목장 모임이 아니어도 일반 Playdate 하듯이 주말이면 같이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최근엔 아이들 덕분에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가정이 저희 목장에 함께하게 된 일도 있었고, 목원의 친구가정 아이들이 저희 목장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또 저희 목장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목장을 통해 하나님일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평신도 사역자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멋있고 있어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저를 그런 멋있고 있어보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갈길이 멀고 많이 부족해서 힘들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목장 기도제목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부목자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목장 식구들의 영적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채워줄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한 두가정 더 들어와서, 분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게 저에게 주셨던 평신도 사역자의 마음을 주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 조쉬 안 (히로시마 목장)

## 신앙의 유산을 위해



믿음의 유산을 받아 현재 손자까지 5대째 신앙만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하다 2009년 공부하던 아들이 있던 미시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들 내외가 2015년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어 그때부터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이지역에 시니어 예배가 있다는 교회를 모두 다녀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 임마누엘 에녹은 예배가 살아있고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동일한 시기에 이예스더 전도사님이 담당 교역자가 되셨는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겸손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녹 예배와 모임이 너무 귀하고 즐거워 2022년도 100%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예배 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동년배, 선배, 후배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강사분들의 재능과 여러 지체들의 섬김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데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자녀세대의 신앙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배우고 삶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볼 수 있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에녹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성숙한 멤버로 저를 성장 시키기를 바라며 나아가 아들 내외와 손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글 | 지경자 (에녹 위원회)







지난 5월 에녹위원회에서는 야외회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고, 주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사행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등 | 임경애**

임재 하시는 성령님  
 마음 속 깊이 계시네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녹 어른들 모시고  
 녹음 우거진 이 곳에서  
 평안과 사랑을 돈독히 하며  
 원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예술이나, 돈이나, 지위나  
 수만 가지 보석보다 더 귀한  
 구주의 사랑  
 원더풀, 원더풀



**1등 | 김옥남**

영영 죽을 내 인생  
 혼자서는 구원 얻지 못하네  
 구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원해도 영상을 얻지 못하지요



**2등 | 이예준**

에녹처럼 믿음이  
 녹슬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3등 | 정혜경**

에이고  
 녹녹지 않은 세상에  
 평안하고 씩씩하게  
 원없이 할렐루야



**4등 | 조규완**

에라고 말하세요.  
 수천 번을 물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없이 부를 우리의 구세주

## 세례 / 입교



## 목자 부목자 헌신 / 수련회

## 부활절 / 추수감사절 거리 사역



## 비전청년평원 바자회

## 어린이 합창단 / 청소년 오케스트라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http://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박성호

[편찬인] 민경진

[기획] 방보경

[편집] 김연희 장은영 차연주 한미송

[사진] 김홍대 윤영숙 백종현

[디자인] Sandra Lee 신유진 한혁

[기도] 김연길 유정혜 이연미 조순란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